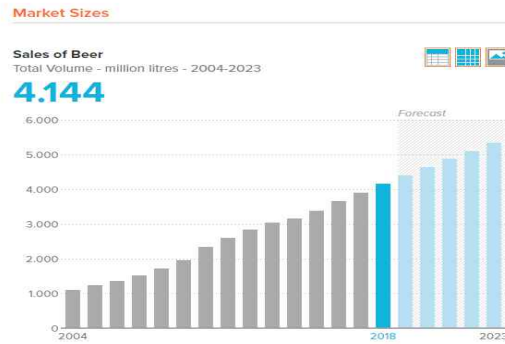


2019년 1월 13일, 하노이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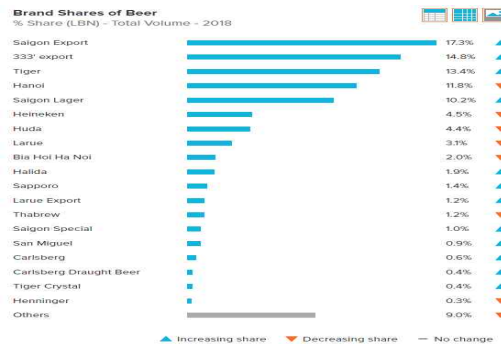
□ 베트남 맥주 시장 현황.

▫ 2019년 맥주 시장 현황

- 최근까지 베트남 맥주 시장은 성장해 나가고 있음. Statista 연구에 따르면 2019 맥주 판매액으로 계산해보면 베트남인은 1인당 연평균 79,55\$를 맥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며 매년 약 46억 리터에 해당됨



- 베트남 맥주 시장은 수십여개의 맥주 브랜드가 들어와 있으며 맥주 회사인 Sabeco, habeco, Heineken, Tiger 등 4개사가 약 90%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. 그 중 사이공(Saigon)맥주와 하이네켄의 시장점유율은 약 60%로 베트남 맥주업체의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음



* 출처: Portal.euromonitor

□ 설날 맥주 시장 현황

- 평소에도 베트남인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인 맥주는 매해 설을 기점으로 맥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함. 평균적으로 베트남 일반 국민의 경우 설에 친구 및 가족등에 선물하기 위하여 중,고급맥주를 많이 구입하는 편이며 설날 시즌에는 그에 맞추어 맥주 가격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 평균적으로 설 시즌의 맥주가격은

1. Tiger :335.000~340.000동/박스,
2. 333 맥주 235.000~240,000동/박스,
3. Heineken 395,000~400,000동/박스에 육박함.

그러다보니 1인당 구매 맥주 제한을 최대 5박스까지 정해두는 마트가 존재함

□ 2020년 맥주 시장 전망

- Euromonitor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맥주 소비량은 연간 약 49억 리터에 육박 할 예정이며 평균 증가율은 5.5%에 달하는 것으로 예정됨. 최근들어 음주운전 강력단속 등 알코올 섭취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등이 등장하여 '20년의 맥주 소비량은 전년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. 실제로 알코올 섭취에 대한 규제법이 신설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현재까지 맥주 판매 가게의 손님이 약 50% 가량 줄었음

□ 알코올 중독 예방법 신규 법령 공포

- 베트남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음주운전임. 그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개선사항으로 현재 다양한 법안이 공포, 시행되고 있으며 '20.01.01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베트남의 신규 법안이 공포되어 도로로 다니는 탈 것들(자전거, 오토바이, 자동차 등의 모든 차량포함)을 단속할 예정이며 과거와는 달리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

- * - 오토바이의 경우 최대 8백만동(한화 약 40만원)
- 자동차의 경우 최대 4천만동(한화 약 2백만원)에 해당되며 1년동안 면허 취소를 받음)

□ 시사점

- 베트남 정부의 건강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베트남인의 습관이 점점 개선되며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. 따라서 과거 맥주와 술을 마시는 문화에서 는 알코올의 음료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. 베트남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주류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신규 아이টে민 논-알코올을 출시, 홍보하여 베트남 소비층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□ 출처

- <http://cafef.vn/giam-nhau-gia-bia-tet-van-tang-2020011110391472.chn>